

CJ, 염화나트륨 줄인 저염소금 출시

CJ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일반 정제염보다 40% 낮은 저염소금 <백설 팬솔트>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CJ는 팬솔트가 염화나트륨 함량이 57%로 일반 소금의 기준인 88%보다 낮지만 염화칼륨이 함유돼 짠 맛은 비슷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팬솔트는 소금 섭취가 많은 핀란드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개발돼 1982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핀란드 소금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자일리톨, 식물성 마아가린 벤네콜과 함께 핀란드 3대 식품으로 꼽히며 미국, 영국 등 16개국에서 특허를 받아 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가정용(200g)이 3350원, 파우치형(300g)이 4350원으로 일반 정제염이 kg당 1000원선인데 비하면 비싼 편이다.

CJ는 전체 소금시장(2000억원)에서 팬솔트가 속하는 기능성 소금시장은 200억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가공 식품이나 김장 등에도 사용되면 시장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05>